

建築士의 将来

鄭 寅 国

(韓國建築家協會長)

建築士의 社会的職分의 定立過程은 세 段階로 볼 수 있다.

첫번 段階는 그 社会的職分이 未分明하여 서로서로의 紐帶關係도 없고 社会的処遇도 原始的雇傭關係의 限度를 벗어 나지 못한 段階로 韓國에서는 建築士法이 分布되기 以前 까지의 狀況이며,

둘째 段階는 法的으로 그 社会的職分을 保障받으며, 共同利益을 위한 同一職種의 職業團體가 組織이 되고 建築主와 平等한 立場에서 報酬에 對한 雙方合議契約이 締結되는 段階를 말하는 바 이는 現在의 韓國建築士가 處해 있는 段階이다.

세째 段階는 위의 둘째 段階를 法的社会的 職分確立期라고 치면 이 마지막 段階는 自然的 社会的 職分確立段階라고 할 수 있다.

원래 어떤 職業의 社会的 職分이 保障받고 認定받게 되는데는 根本적으로 두개의 다른 種別을 嚴格히 区分하여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單純히 法的인 處理로 끝마칠 수 있는 職種 例를 들어 肉體勞動, 技術提供, 一般事務職등과 法的限界를 넘어서 그 社會에서 그 職業에 對하여 營爲의 安易性和 信賴와 尊敬을 받을 때 ضمن된 社会的 職分이 確立되었다고 믿어지는 職種—, 많은 知的活動家의 들을 区分하여야 한다.

韓國의 建築士가 이 最終의 段階까지 이르게 되려면 거쳐야 할 많은 難關이었다. 그 難關이란 앞으로 韓國建築界에서 必然적으로 變化할 狀況에 對해서 建築士들이 能히 自己를 對處해 나가갈 수 있을까 하는 憂慮이다. 将来 韓國建築界의 變化할 狀況을 予測하기는 매우 힘들으나 世界의 建築潮流와 전주어서 다음 몇개의 事項을 指摘할 수 있다.

● 建築士의 數의 增大와 建築業務量間의 不均衡.

당분간은 韓國經濟成長에 힘입어 이 間의 調和는 維持될 것이지만 早晚間에는 建築業務量은 建築士의 數의 增加를 따르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質에 대한 偏重이 더욱 甚해지고 自然淘汰現象은 지금보다 더 큰 幅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 建築에 대한 社会的 要求는 더욱 多樣해지고 次元은 높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建築士들은 지금과 같이 限定된 智識과 技術의 內容만 가지고는 이러한 要求를 充足하기 힘들게 된다. 가장 쉬운 住宅의 例를 들더라도 서울市內 到處에 散在해 있는 똑 같은 類型이 아무 꺼리낌 없이 橫行하고 있는 事例만으로 오늘의 建築士의 思考限界와 職分 自覺力을 짐작케 하며, 이러한 狀況이 앞으로 2, 3年 더 持續되리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지금 激動하는 世界建築潮流는 우리 韓國海岸의 모래알을 스쳐가는 程度에 지나지 않지만 이제 얼마 안가서 그 狂暴한 勢力은 本土로 밀어 닦치게 될 것이 分明하다. 부부탈리즘, 메타보리즘, 네오·내쇼내리즘, 네오·빠로코, S·F 構造, Pre-Fab 構造, 콤퓨터디자인 등등 헤아릴 수 없는 새로운 建築概念은 우리들이 精神을 차려 받아들이기 전에는 미쳐버리기 알맞은 狂亂의 世代이다.

그러므로 賢명한 將來의 建築士는 우선 自己의 創作活動의 基盤을 整地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世代에 對處할 準備를 갖추어야겠다. 그리고 나서 서서히 自己의 個性을 감안한 建築哲學을 樹立하는데 온 힘을 傾注하여야 할 줄 안다.

● 顧客・建築主의 眼目은 점점 向上하여 建築士들이 批判받는 정도는 더욱 苛酷해진다. 물론 이때까지도 建築主들은 建築士들을 무시할 程度로 自己主張과 要求를 내세우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主張을 建築士들이 어떻게 받아들여 解決하였는지를 採点할 能力은 없었다. 그래서 大部分의 顧客은 充實히 自己意見에 따른 것이면 滿足하였으나 앞으로 이들의 倍加되는 知的 水準은 그 以上の것을 充足시켜 주기 前에는 滿足할 줄 모르게 된다. 왜 그러나하면 그들의 現實의 要求는 몇 年 안가서 社會情勢의 變化와 生活相의 變貌에 따라서 쉽게 不滿스러운 것으로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建築士는 W, Gropius 가 교묘하게도 表現하여 教訓한 “建築家は 奉仕者인 同時에 指導者”라는 語句의 眞實함을 알아야 할 段階에 直面하게 된다. 또 한걸음 나아가서 機能의 創造者로서의 役割을 하여야 한다. 이 때 비로소 建築士는 人類社會에 功獻하는 本然의 社會的 職務를 遂行하게 되는 것이다.

● 建築批評의 風土는 점점 高揚되어 建築士들의 作品은 이제는 個人的 活動의 產物으로서가 아니라 社會의 한 部分을 차지하는 創作物이 된다. 韓國 建築界에는 아직 좋은 의미의 建築批評風土도 造成되고 있지 못하다. 온건한 建築批評이 이루어 질려면 세 가지 條件이 具備되어야 한다. 즉 對象이 될만한 建築이 具體化되어야 하며, 批評이 받아들여질만한 建築風土가 마련되어야 하며, 批評할 水準의 能力을 갖춘 人士가 그 社會에서 許容되어야 한다. 이 條件 가운데 批評의 對象이 될만한 作品은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두 條件은 아직 具備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建築活動은 自由를 享樂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이와 같은 公稱批評보다 더 무서운 社會의 눈에 의한 예리한 批評은 더욱 더 큰 힘으로 建築士들의 作品에 影響을 줄 것이다.

● 建築活動과 關聯된 모든 行政的 規制는 점점 強化되어 整備되는데 따라서 建築士들의 設計能力이나 技術力量은 일층 廣範圍한 綜合된 智識의 뒷받침 없이는 이를 解決하기 힘든 段階에 이르게 된다. 예를 들어 美觀地區規制, 再開闢地區, 住宅地域內 高層建物制限, 高層建物 또는 特殊建物에 대한 防火施設規制, 높이에 대한 制限 등 많은 規制法과 加重되어 가는 都市計劃에 대한 考慮는 過去의 좁은 울타리 속에 建築士를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한다.

建築士는 將來에 自然的 社會的 職分段階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 段階는 위에서 羅列한 모든 內容이 建築士들의 힘에 의하여 解決될 때 到達하게 된다. 즉 質에 의한 淘汰가 이루어지고, 成長變化하는 建築潮流에 對應하여 知識과 能力限界가 넓혀지고, 顧客과 社會의 批評에 能히 견디어내며 人間生活의 創造者로서의 役割을 다할 때 아무 人爲的인 束縛의 方法이 아닌 自然스러운 建築士의 社會的 職分은 確立된다. 社會의 尊敬과 信賴는 저절로 建築士들에게 주어지고, 強要하지 않더라도 最上의 代價는 自進해서 받쳐진다. 그리고 우리 都市는 아름다워지고 建物들은 어느 나라 못지 않게 眞善美를 다 한 最上의 것이 될 것이다. 이 때 建築士는 이 樂園에서 自己 職業의 滿足스러움을 驅歌하게 될 것이다. 그 길은 멀고 험할지 모르나 언젠가는 올 것을 믿고 邁進하는 것이 將來 建築士의 目標일 것이다.